

애가의 유익 (애 5장)

I. 예레미야 애가, 5장

- A.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538년에 기록되었으며, 3차 바벨론 포로 이송 이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그 배경이다. 유대인들은 매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며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으며 (스 7:3, 5), 이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BC 586년 이후에 기록되었다.
- B. 우리는 슬픈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 우리의 감정이 함께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경험을 하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 애가는 1) 우리가 다시는 애가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을 다지며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2)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임을 다시 상기시킴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욱 공고하게 해준다.
- C.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 애가를 읽으며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동일하게 경험할 필요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동일하신 불 자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9 ... 여호와와 더불어 시온에 있고 여호와와 더불어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사 31:9)

- D. 한 주석가는 예레미야 애가에 드러난 핵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마지막 때의 일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으로 가까이 오심으로 땅의 죄와 어둠이 가장 최고조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준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노래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이다.”

- E. 예레미야는 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길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한다. 4장에서 딸 시온을 향해 예루살렘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었다면, 예레미야는 5장에서는 하나님께 상황을 올려드리고 있다.

1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피보옵소서 (애 5:1)

- F. 2-10절은 예루살렘 땅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세세히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다 (2절, 재산을 빼앗김 / 3절, 기댈 곳이 없음 / 4절, 일상 생활이 어려움 / 5절, 불안하여 안식하지 못함 / 6-7절, 여호와가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한 조상의 죄악을 담당함 / 8절, 종들에게 지배당함 / 9-10절, 먹기 위해서 뜨거운 열기 아래 목숨을 걸어야 함).

G. 11-14절은 각 계층의 사람들, 여인들과 지도자들, 청년들과 노인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올려드린다.

11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 12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 13 청년들이 멧돌을 지며 아이들이 ... 14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애 5:11-14)

H. 15-18절은 예루살렘의 마음을 올려드린다. 예루살렘은 기쁨 대신 슬픔을 (비교. 시 30:11), 전에 누리던 자랑이 사라졌고, 마음은 삶으로 인해 피곤하고 희망이 없고, 기쁨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시온 산≠시온)은 간데 없다. **삶의 모습에서 세대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 이제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으로 옮겨가는 예레미야의 시선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초점들이기도 하다.**

15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16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17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18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애 5:15-18)

I. 예레미야는 이제 이 현실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연결한다. 예레미야는 이 현실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모두 잊어야 하는 광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친히 일하신 결과임을 잘 알고 있다.

19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애 5:19)

J.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이곳에 기록한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기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여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결코 아무 때나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공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

20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애 5:20-21)

K. 우리는 예루살렘이 경험한 이러한 엄위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음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잘 서 나가도록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크신 손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담대히 서 나가야 한다.**

22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완전히 거절하셨으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애 5:22)